

“민주·인권 버팀목… 세계평화의 별이 졌다”

■ 세계 주요 언론 긴급 보도

CNN “노벨평화상 수상자 심정지로 타계” BBC “민주주의·한반도 통일에 평생 바쳐”

세계 주요 언론들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일본 NHK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자막으로 신속하게 전한 뒤 고시엔 고교야구 중계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로 김 전 대통령의 약력과 함께 서거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투사로 활약했으며 대통령 재임 중인 2000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등 한국 정치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을 방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도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전 대통령 서거를 주요 뉴스로 전한 뒤 인터넷 한 페이지를 특집기사로 도배했다. 특집란은 김 전 대통령의 자세한 프로필과 '한국경제, 3김 시대 마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노벨 평화상 수상' 등을 제목으로 한 10여 건의 기사와 각종 사진으로 채워졌다.

CCTV 뉴스전문 채널도 일반 보도 중간에 신화통신을 인용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긴급 보도한 데 이어 시시각각 속보를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인터넷 관인 인민망에서 서거사실을 주요 기사로 올리며 특집페이지를 마련했다.

미국 CNN은 서거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한 데 이어 인터넷판 배너에 의료진 발표를 인용,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 전 대통령이 심정지로 서거했다”고 띄우는 등 서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김 전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민주화 투쟁과 남북한 화해, 통일에 대한 열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으며,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김 전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 투쟁에 있어 위대한 인물이며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AP 통신은 “김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인권·민주주의 투사로 명성을 쌓았으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으로 전례없는 남북관계 완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긴급 보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김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 납치, 체포, 사형선고 등에서 살아남았으며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 과정을 소개했다.

BBC는 김 전 대통령이 “군사 정권이 지배하던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통했다”며 네 차례의 도전 끝에



18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조문을 끝내고 나오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에 1997년 대통령에 당선돼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당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다고 소개했다. BBC는 특히 서거 소식을 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화상시절 사진부터 남북 정상회담까지 일생을 다룬 사진과 동영상 편집해 내보내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 본드가 등장하는 007 소설의 한 페이지에 나올 법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남았다”며 햇볕 정책을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김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휴전 상태에 놓여 있던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아랍권의 대표적 방송인 알-자지라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긴급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조문단 보낼 듯

김정일 명의 조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함에 따라 고인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조문단을 보내 조의를 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김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하룻만에 이를 보도하고 이를 뒤 김 위원장 명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상사로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권양숙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조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북측은 특히 이번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해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 조의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는 김 위원장의 명의로 조전을 발표할 뒤 바로 4시간 만에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북한이 이미 핵실험의 초음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조문단 파견이 현실성이 없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분단 이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남북관계의 기본원리로 규정된 ‘6·15공동선언’의 남측 상징이기 때문에 조문단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등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관리하는 쪽으로 대남정책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도 조문단 파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대외 관계의 전면에 나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인간미를 쓰고 있는 양상이어서 조문단 파견을 이러한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 3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별세 때에도 북한은 송호경 당시 아태 부위원장 겸 통전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조문단을 파견했다. /연합뉴스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던 선배이자 친구였는데…” 각국 정치인 애도

미국과 일본 등 세계각국의 유력 정치인들도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 민주화와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애도했다.

1970년대 김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을 피해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할 당시부터

친분 관계를 맺어 온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의 의장은 담화에서 “내의를 통해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던 선배이자 친구였는데 서거 소식을 들으니 매우 유감이다”라고 애도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힘들었던 시절을 잘 아는 만큼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마치 내 일처럼 기뻐했었다”고 회고했다.

나카스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

왔고, 4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만큼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정치 지도자였다”며 “특히 한일 간 외교관계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브라운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은 격동의 시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아시아 금융

위기 시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애석해 했다. 브라운 총리는 또 “김 전 대통령은 2000년도에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도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 세계 인권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영국 정부를 대신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재단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우리는 그가 인권을 위해 싸우고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기억한다”면서 “유족과 한국 국민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넬슨 만델라 재단은 이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데 대해 애도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의 강령을 위해 희생하신 정신, 공의를 사수하신 당신의 모습을 온 국민이 기억하겠습니다.

프리드 (Freed) 연대중합상조